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, 정비수가 공표제 폐지 추진

- 12월 8일 금융위원회 등은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이 이달 중 마련되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.
 -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료를 낮추고 자동차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부처협의를 끝나면 이달 중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함.
- 추진 중인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에는 중고차 보험료 인하, 정비수가 공표제도 폐지, 보험료를 체계 개선, 사업비 초과 문제 해소,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의 내용이 포함됨.
 - 중고차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년이 지난 1,500cc 미만 소형차의 경우 보험료를 10%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.
 -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해양부 정비수가 공표제도의 폐지를 검토함.
 - 다만, 금융위와 국토부, 보험사,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하여 정비수가를 둘러싼 분쟁 조정과 같은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임.
 -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액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가 직접 내도록 한 자기부담금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 보험료를 체계의 개선도 추진 중에 있음.
 - 교통신호 및 속도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나 가해자 불명사고를 여러 건 보험처리한 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대책도 추진 중에 있음.
 - 자동차 보험사들의 만성적인 사업비 초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판매비 집행액을 예정사업비의 40%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함.
 -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진료 등을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자동차보험 진료수를 건강보험 진료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임.
 -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작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한 보험범죄 전담 합동대책반의 운영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상설화하는 대책도 검토함.

(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, 연합뉴스, 12/8)